

코스피 2536.75 (+27.48)	코스닥 740.32 (+9.34)
금리 (미국 9년) 2.582 (+0.004)	환율 (원·달러) 1449.45 (+5.15)

업황 악화 이어
트럼프 리스크까지
포스코, 위기극복 주목
02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스타링크’ 상륙 임박 6G 게임체인저 되나

머스크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과기부, 주파수 이용조건 가닥
이르면 4월부터 국내 서비스 전망

도입엔 장기적 가입자 급증 예상
이통사 잇단 협력, 시장변화 촉각
요금 경쟁 시 판도 변화 가능성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G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산업 경쟁이 국내에서도 가시화되면서 통신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데다 국내 이통3사도 사업에 협력기로 하면서 통신 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이용 조건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위성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가 오는 3월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또는 올해 2분기안으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통신은 중장기적인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도

달하지 못하는 해상·상공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군(軍) 작전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제 로밍도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

결국 스타링크의 국내 시장 진입은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6G는 초고속과 실시간 정보 전송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선 저궤도 위성통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UAM은 다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하늘, 바다, 해안을 오가며 날아다니게 된다. 다만 지상망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통신 연결이 잠깐 끊어져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유연한 연결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세계 스타링크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100여 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스타링크는 국내 시장에 도입할 경우 누적 가입자가 3년 안에 급증할 것으로 보고있다. 스페이스 X에 따르면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할 경우 1년 차에는 누적 가입자가 2130명에 불과하지만 2년 차엔 9580명, 3년 차엔 3만 354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차엔 누적 가입자가 4만명을 웃돌고 5년 차엔 6만7670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의 판도가 뒤 흔들릴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 이통3사(SKT·KT·LGU+)는 최근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본업인 6G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보다는 인공지능(AI)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개인용 이동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있는 만큼 미국 등 타국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중소 수출 가시밭길... 정부 정책 발등의 불

막오른 美 관세정책

수출 중소기업·액수 늘었지만
전체 수출 기여도는 지속 하락
가격경쟁력 기반 시장개척 필요

트럼프가 불지피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희생양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이 미국의 관세 도발과 중국의 시장 공략 강화로 인해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17년 당시 9만 2374개사에서 지난해에는 9만5905

개사로 3531곳 늘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수출은 1061억 달러(2017년)에서 1151억 달러(2024년)로 8.5%(90억 달러)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8.5%에서 16.8%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2020년 당시 19.6%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며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중소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10년 14.7%에서 2022년엔 8.2%까지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매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갈라파고스화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부는 2021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서 2020년 당시 9만 4900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를 올해까지 최대 약 18만5000개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25년이 됐지만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짙다.

중기부는 또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 즉 ‘간접수출’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오리무중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TF’를 꾸린 바 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무역전쟁 우려·중동 위기감에 금값 천정부지

금 선물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
국내 금 시세도 한돈 55.4만원 달해

금 수요가 치솟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에 더해, 트럼프의 강경한 대(對)중동 외교 전략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안전자산 수요를 끌어올렸다. 금 가격은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를 목전에 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금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3일 연속 경신했다. 작년 초 1트로이온스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스1

(31.1g, 약 8.1돈)당 2073.4달러(약 3001만원)였던 금 선물은 13개월 만에 2893달러(약 4190만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한 돈(3.75g)에 32만6000원이었던 국내 금 시세도 55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금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對)중동 외교도 금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으로 잦아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힘입어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최 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농수산물 할인지원 등 실행

최삼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밝힌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하겠다고면서,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겠다

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5%, 경유·LPG는 23%다.

또 최 권한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 추가 투입 ▲과일·채소 할인관세 물량 37만톤 신속 도입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공급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석유류·김 등 생활 밀접품목에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 엄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원희룡 “내란죄 뺀 한덕수 ‘영터리 탄핵’ 즉시 기각해야”
▲ 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제외’ 빼고 일단 처리... 파트도 검토” /사진 뉴스1

▲ 김종인 “다음 대선 출마자는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 최 대행 “법원 폭력 엄정 대응 못해 송구... 계엄은 잘못된 결정”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기소 휴직... 육군총장 인사조치 검토”
▲ 곽종근,尹 면전에서 “윤, 의원들 데리고 나오는 지시”

업황악화 이어 트럼프 리스크... 포스코, 위기극복 DNA 발동

포스코, 지난해 영업이익 40% 줄어
철강관세 예고에 위기감 돌지만
과거 비슷한 위기 속 경쟁력 입증
“원가구조 체계화 등 방안 모색중
中 규제·재정정책, 긍정적 작용”

철강업계의 ‘만형’ 포스코가 업황 악화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40% 감소했다. 여기에 미국의 무관세 쿼터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포스코를 둘러싼 위기론이 연이어 제기되는 형국이다.

다만 포스코는 과거 미국의 ‘트리거 프라이스’ 제도 속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 철강업체들이 수입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을 때, 포스코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번에도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매출은 72조 68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9500억원으로 48.6% 감소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매출 37조 5560억원, 영업이익 1조 4730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6%, 29.3% 감소했다. 철강 수요 부진과 경기 침체 등 여파에

따른 가동 고로 개수 변동 등으로 인한 생산·판매 감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산업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 1970년대 제임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실행한 ‘트리거 프라이스’ 제도 속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트리거 프라이스는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덤핑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수입규제 방식이다.

당시 포스코는 UPI(USS-POSCO Industries)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했다. 미국 US스틸과 50대 50으로 투자해 피츠버그의 냉연공장을 현대화한 뒤 포스코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상마찰을 피해 간 것이다. 또한 일본 철강업체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다. 일본 업체들이 고가 정책을 유지하며 높은 가격으로 철강을 판매한 것과 달리 포스코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포스코는 트리거 프라이스 제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

의 관세 부과를 피하고 생산 현지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업황 악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복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원가구조 혁신을 보다 체계화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원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저가 원료를 효과적으로 배합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인도, 북미 등 고성장·고수익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탄소중립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규제 심화와 재정정책 등 완화된 통화정책은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며 “글로벌 철강시황은 올 하반기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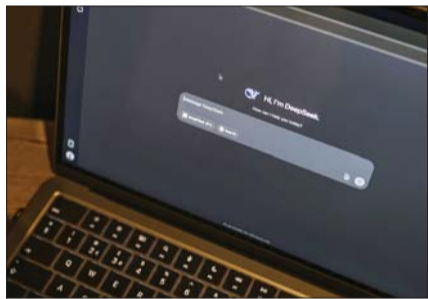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밀 빠져나갈라”... 딥시크 잇단 ‘금지령’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잠정 실패

정부·경찰·은행 등 ‘접속차단’

보안결함 문제 100여 가지 이상
개인정보 DB 유출사고도 발생

“정보수집 체계, 챗GPT 등과 달라
보안 검증 될때까지 지속할 예정”



웹페이지에서 접속한 딥시크 R-1 화면. /PEXEL

‘딥시크 쇼크’가 가라앉기도 전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 주요 부처들과 기업들이 딥시크 금지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주요 기밀 사항이 딥시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면서 중국발(發) 기술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6일 주요 정부 부처들과 기업들이 연달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날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했고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공정위 등이 접속을 차단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에서도 재빠른 차단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하나은행·우리은행 등도 4일부터 차단했다. IT업계와 여타 산업계에서도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가 업무목적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롯데·신세계그룹 등 유통업계도 차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딥시크의 정보 수집 체계가 챗GPT 등 여타 생성형 AI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사기업을 막론하고 나타난 이번 차단 조치는 전체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딥시크에 한정되고 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보안 문제가 딥시크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딥시크의 보안 결함 문제는 100여 가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코 연구팀과 펜실베이니아대 공동 연구진의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딥시크 R1’은 유해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만든 ‘알고리즘 감옥 탈출’ 기술을 사용한 결과 R1이 50번의 시도를 모두 차단하는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딥시크 R1은 100% 방어 실패를 기록했고, 단 하나의 유해 프롬프트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합벤치’ 데이터 세트는 사이버 범죄, 허위정보, 불법 활동 등 7가지 유해 범주에 걸쳐 총 400개의 위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고 또한 발생했다. 딥시크는 지난 1월 29일 인증 절차 없이 접근 가능하게 방치된 ‘클릭 하우스’ DB가 발견돼 개인대화 기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API 인증키, 내부 운영 기록 등이 고스란히 유출됐다.

딥시크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안 설정을 강화했으며,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현재 딥시크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용자 개개인이 딥시크와 대화한 후 발생 데이터가 보안을 허무는 공격에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사기업, 개인 모두에게 딥시크는 위험한 AI로 몰리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딥시크의 문제를 두고 오픈소스 AI에 대한 한계로 보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딥시크 자체가 가진 한계로 풀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개발한 점과 함께,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자체가 극히 최근에서야 생겨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허점은 아니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2021년에야 통과시켜 뒤늦게서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허술한 보안책을 가졌다는 이미지가 향후 기술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인 틱톡의 백도어 문제에서 틱톡이 끊임없이 무고함을 증명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기반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됐다”며 “전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온 딥시크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 만큼 중국의 신기술 안정성에 대한 편견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잠정 실패

산업부 “잠정적 가스징후 일부 확인
경제성 확보할 수준의 규모는 아냐”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동해 심해 가스·석유 탐사 프로젝트(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가 잠정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스나 석유가 매장될만한 구조인 것은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탐사시추를 위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47일간 동해 7개 유망구조 가운데 1개 유망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 시료 1700편을 채취했다. 채취된 시료와 시추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문 분석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중간 결과는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문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오므로 구체적인 수치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탐사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이지만, 가스징후 일부

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왕고래구조에서 추가 탐사시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징후가 나오면 가스포화도와 저류층 두께, 덮개암이 충분했는지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탄화수소의 가스포화도”라며 “그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탐사시추까지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가스 부존 자체 가스징후나 경제성을 확보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추중 획득한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거쳐 후속 탐사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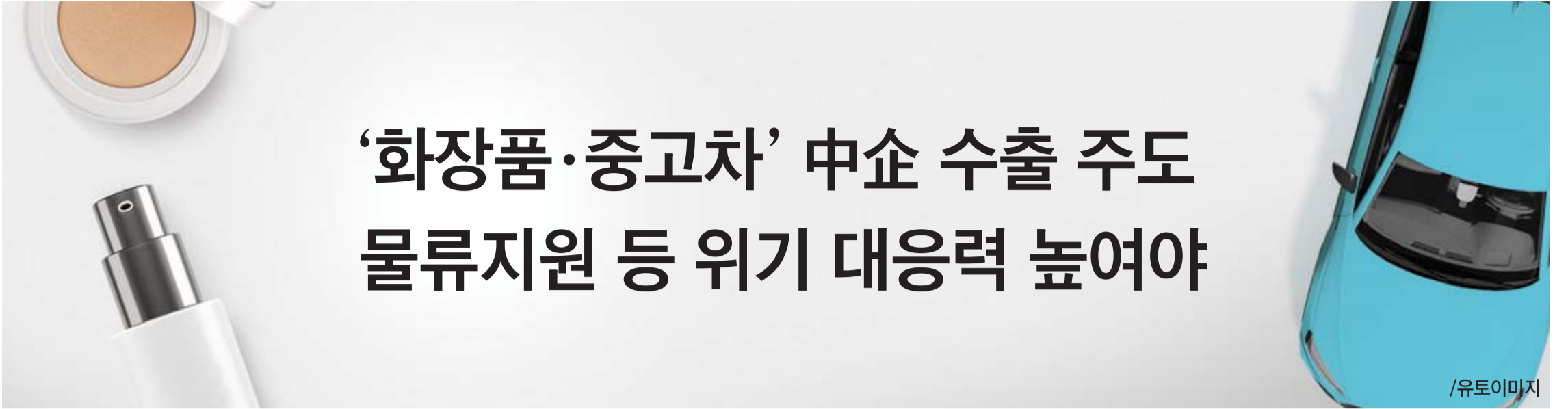
국내 통신 3사서 스타링크 서비스 재판매

» 1면 ‘스타링크 상륙 임박...’서 계속

스타링크 서비스 재판매도 국내 통신사들이 맡는다. 앞서 SK텔레콤과 KT SAT, 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스타링크가 통신3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시하고 휴대폰과도 본격 연결시킨다

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패권 구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기존 통신의 보완재로 역할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성통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화장품·중고차’ 中企 수출 주도 물류지원 등 위기 대응력 높여야

/유토이미지

중소기업 수출 현주소는

2024년 중소기업 수출 효자 품목은 ‘화장품’과 ‘중고자동차’였다.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은 한류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특히 화장품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가운데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 2023년 53억2000만 달러, 2024년 68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위에 올랐던 2022년에도 화장품 수출 규모는 46억 달러에 달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4년과 2023년 각각 역대 1·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23년 20.2%, 2024년 27.7% 씩 늘어 중소기업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화장품 수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차별화 제품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원화약세 악영향... 저가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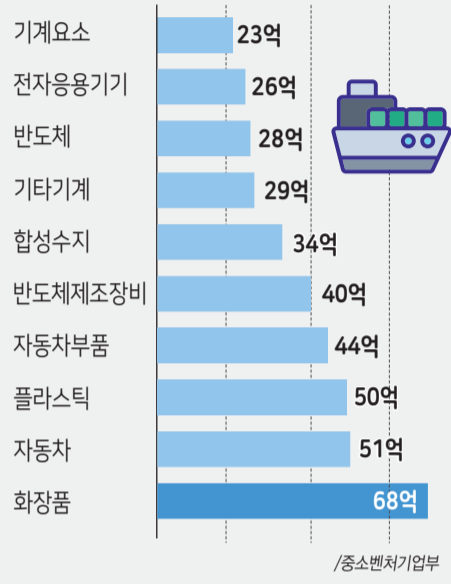
지난해의 경우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10억7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4.7%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미국이 전년대보다 무려 46.5% 증가한 13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7억5000만 달러)과 베트남(4억5000만 달러), 홍콩(4억 달러)도 두자릿수 이상 수출이 늘어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이 팔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기초화장품은 지난해 미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수출이 늘었다. 메이크업 제품은 미국, 폴란드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에 비해 45.5%나 늘어난 립스틱 제품은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팔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화장품 총 수출액은 지난해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한화로는 약 15조원 규모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이 차별

2024년 중소기업 수출 품목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화된 제품을 내놓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화장품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4%로 전년의 62.6%에 비해 3.8%포인트(p) 늘었다.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화장품 총 수출액은 전년대보다 11.9% 증가한 114억 달러로 전망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출국이 다변화됐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장 추가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원화 약세로 인한 화장품 생산단가 상승과 중국산 저가 화장품이 해외시장을 추가 공략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안타증권 이승은 연구원은 “올해에도 K-뷰티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주력시장이었던 중국은 자국 브랜드의 성장으로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하락하는 반면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특히 미국에선 럭셔리 브랜드보다 인디 브랜드, 가성비비를 중시하는 K-뷰티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수출의 또다른 효자 품목인 중고자동차는 2022년까지만해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 7위(31억 달러)에 머물렀었다.

그러다 2023년(49억 달러)과 2024년(51억 달러) 모두 화장품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중고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키르기스스탄(15억4000만 달러), 카자흐스탄(3억9000만 달러), UAE(2억5000만 달러)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중고차 수출은 2023년에 비해 55.8%나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리비아(2억2000만 달러), 이집트(2억 달러) 등 중동 지역에선 20% 줄었다. 러시아로 중고차 수출도 지난해 5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보다 20.8% 빠졌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당시 23만대 수준에 그쳤던 중고차 수출은 2018년 36만대, 2020년 39만대, 2022년 40만대 등으로 점점 증가세다. 2023년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수출 물량이 이미 42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액 역대 최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심화 “클러스터 통해 선진화 도모해야”

수출대수(2022년 기준)로는 리비아(6만1841대)에 가장 팔렸다. 리비아에만 전체 중고차 수출물량의 15.3%가 집중됐다. 이외에 요르단(4만2273대), 튀르키예(4만514대), 이집트(3만8516대), 키르기스스탄(2만3273대), 칠레(1만7251대), 캄보디아(1만524대), 몽골(8952대), 예멘(6705대), 가나(6196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출금액(2022년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전체 수출금액(29억5000만 달러)의 1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요르단(18.3%), 카자흐스탄(9.7%), 키르기스스탄(8.1%), 이집트(5.3%), 리비아(4.5%), 칠레(2.9%), UAE(2.7%), 도미니카공화국(2.2%), 캄보디아(1.3%) 등의 순이었다.

수출대수 기준과 수출금액 기준 순위가 다른 것은 수출 차종에 따라 수출 차량의 대당 단가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한 수출 금지로 신차급 차량의 우회

수출이 증가해 수출대수에 비해 수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연구원 김천곤 선임연구원은 “중고차 수출 관련 행정·금융·정비시설·물류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중고차 수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중고차 수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입, 보관, 차량 전시, 수리·점검 및 수출 물류 프로세스(통관, 지자체 행정업무 포함) 등 통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 통합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1면 ‘중소 수출 가시밭길...’서 계속

“첨단·고부가 분야 등 중소 브랜드 전략 필요”

TF는 이달 중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를 듣고 대책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찬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원가 기반의 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디자인+혁신기술+사용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브랜드 수출에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존의 수출 방식은 거래단절율이 50% 이상이지만 브랜드 수출은 제품 충성도가 높다. 재거래 수출 비중을 7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브랜드 전략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은 이날 내놓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중 하나로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을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자국 보호무역 기조를 펴면서 무역 분절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중국내 경기 둔화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연구원 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은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가별 수출경향도를 분석해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불닭’ 신화 잇는다... 글로벌·헬스케어 도전 가속

③ 삼양식품 전병우 상무

‘불닭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삼양식품은 오너 3세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상무)을 전면에 앞세워 그룹의 성장과 혁신을 이어간다.

1994년생인 전 상무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의 장남으로 미국 컬럼비아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2019년 만 25세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했다. 2022년 삼양애니 대표에 올랐고 2023년 상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전 상무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사업 발굴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7300억원, 영업이익은 34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133% 증가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은 2023년 68%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77%로 1년만에 10%포인트 가량 늘었다.

미국과 유럽 내 불닭브랜드 인기가 확산되며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해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삼양식품은 수출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수요에 대응하면서, 현지 불닭브랜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이벤트와 대대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은 전 상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리콜 조치 해제 이후 가진 ‘불닭 스파이시 페리 파티’, 세계 5개 도시에서 약 4만여 명이 참여한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 등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는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은 ‘제2의 불닭볶음면’을 탄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거듭하고 있다.

2023년 선보인 국물라면 브랜드 ‘맵탱’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상무).



삼양라면 출시 6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CSO)이 발표하고 있다.

“

수출 호조, 매출·영업이익 최대 실적 수출 비중 77%... 글로벌 성장 가속

‘스플래시 불닭’ 등 브랜드 캠페인 확대 맞춤형 프로모션, 소비자 점점 강화

‘맵탱’ 등 출시로 포트폴리오 확장 건식식·단백질 음료로 신사업 속도

‘잭앤펄스’로 푸드케어 사업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센터 추진

헬스케어 접목해 경쟁력 차별화 개인 맞춤 건강 솔루션 시장 공략

은 전 상무가 제품 기획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불닭볶음면’에 치우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품군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 상무는 식품 외에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으로 눈을 돌려 사업 확장에 나섰다. 국내 식품 시장이 정체기에 빠진만큼 사업 다각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3월 식물성 단백질 브랜드 ‘잭앤펄스’를 출시했으며, 이후 단백질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차례로 출시, 건식식 사업을 강화했다.

같은 해 10월 ‘잭앤펄스’ 브랜드를 통해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간편식, 단백질 음료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브랜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상무는 ‘잭앤펄스’를 통해 제품군을 넓혀 푸드케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양라면 출시 6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마이크로바이옴 등 바이오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헬스케어사업의 연장선으로 개인 건강 관련 앱 개발은 물론 삼양라운드힐 안에 웰니스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웰니스센터는 건강검진은 물론 개인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도 웰

니스&헬스케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현재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삼양라운드힐의 웰니스 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정밀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개선 서비스 사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사명을 다해온 헤리티지를 근간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넘어 ‘웰니스 & 헬스케어’를 실현하는 전문적 역할로 업의 가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며 “헬스케어와 식품 간 경계와 고정관념을 허물고 통합적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식품과 과학 융합 계획을 통해 식물성 패티, 프로틴 음료 등 헬스케어 및 단백질 소재 제품을 개발하고, 식물 조직 단백질 활용 제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품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노화 대응 건강 솔루션을 확대해 헬스케어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설정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제품의 효과와 차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제품의 주요 타깃 소비층도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



잭앤펄스.

/삼양라운드스퀘어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崔 대행 “‘비상입법기구’ 쪽지, 계엄 당일 내용 보지 못했다”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 동시 출석
崔 대행 “누군가 참고자료라며 전달
계엄 문건으로 인자… 무시하고 안 봐”
野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 장관이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여기서 언급된 문건을 ‘쪽지’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A4 용지에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여러

장의 ‘문건’ 중 하나를 건네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지시를 인지하고 시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이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12월3일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저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워낙 절박적, 실제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co.kr

개헌론 띄우는 與 “여소야대 되면 항상 탄핵”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與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

“李 초대… 야당도 같이 논의하자”
여소야대 국회서 정부-야당 갈등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김종인(가운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현정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 봤다”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10년 내엔 4% 성장 포부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 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 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향의 방향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

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 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 과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체이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되어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Vivid
**STRAWBERRY
 MOMENT**



하와이안 베리볼
 Hawaiian Berry Bowl
7.4 ICE ONLY
 *스푼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딸기주스
 Real Strawberry Juice
6.9 ICE ONLY

생딸기&생바나나 라떼
 Real Strawberry & Banana Latte
6.9 ICE ONLY

ANGELINUS

국내서 안쓰고 해외서 쓴다... 카드 해외승인금액 4조 꺾충

해외 카드 승인잔액 19조 육박
내수침체 속 카드 마케팅 딜레마
카드업계, 내수활성화 집중 예고
수수료 인하에 혜택 축소 불가피

지난해 해외에서 승인된 카드 잔액이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내수침체와 해외여행객 확보 경쟁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모양새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체크카드 승인잔액은 18조84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조295억원) 대비 3조8136억원 증가했다. 연간 25.4% 증가한 수치다. 이어 법인카드 사용잔액은 연간 3821억원 늘어난 4조4596억원이다. 개인·법인카드 모두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늘길이 열린 지난 2022년 이후 해외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 인구는 2868만6435명이다. 연간 60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871만4247명)과 비교하면 관련 수요가 모두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고물가



Chat GPT가 생성한 '일상 비용을 아끼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이미지.

가 겹치면서 해외여행이 합리적이라는 심리가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각각 7.0%, 8.2%씩 증가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비밀접업종 8개 중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 운수업의 경우 항공, 여객 등을 의미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반면 내수시장은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 여행 수요 증가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승인잔액은 연간 1.0%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다.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이 포함된 도·소매업종의 경우 연간 승인금액이 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세를 띤 점을 감안하면 일상 소비를 줄이고 해외여행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카드업계

는 마케팅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여행객 확보와 내수활성화 사이의 저울질이 길어지면서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트래블카드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해외여행객 확보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상생금융 기조를 내세웠던 만큼 내수침체를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동안 카드업계는 내수활성화에 무게를 실어 마케팅을 펼치겠다 방침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소풍쿠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행사 등을 단행하고 있다. 도·소매업 관련 소비를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마케팅 축소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본업인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고되는 만큼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헤지카드', '가성비카드' 발급 중단은 물론 상시 행사 규모도 쪼그라들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만큼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해야한다 분석도 나온다"라며 "대형가맹점은 물론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내수침체 관련 행사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보장범위 촘촘히 확대 다모은 건강보험 S4

삼성생명은 암은 물론 뇌·심혈관질환 치료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4'를 오는 7일부터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암 치료를 폭넓게 보장했던 '다(多)모은 건강보험 S3'에서 뇌·심혈관질환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검사·진단·치료·통원·간병까지 치료 여정마다 발생하는 상황을 촘촘하게 보장한다.

'울인원케어서비스'는 납입기간(최대 20년)동안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건강상담 등 '베이지케어서비스'를, 암 진단 또는 장해 50% 이상 발생시에는 '프리미엄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흥국생명

고지기간 10년으로 ↑ 다사랑 간편건강보험

흥국생명은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입원·수술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낮춘 '무(무)흥국생명 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입원, 수술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경미한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10년 이상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을 유지해 왔다면 기존 5년 간편 고지 상품 대비 약 1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료납입지원특약을 통해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남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보험료 부담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문철 KB 라이프 대표이사 사장(뒷줄 왼쪽 세번째)은 지난 5일 KB라이프타워에서 개최한 'KB STAR WM' 출범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2025년 새롭게 선정된 KB STAR WM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

대우건설, 작년 매출 10.5조... 목표치 초과 달성

영업익 4031억, 당기순익 2428억
신규수주 10조... 4.2년치 일감 확보

대우건설은 6일 공시를 통해 작년 연결기준 매출 10조 5036억원, 영업이익 4031억원, 당기순이익 242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으나 당초 목표(10조 4000억원) 대비로는 초과 달성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6조8418억원 ▲토목사업부문 2조1704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1386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5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9.2%, 53.4% 감소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



대우건설 사옥.

이 시장전망치(에프앤가이드 기준 3514억원)를 웃돌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와 지속되는 원가율 상승 및 일부 주택현장의 일시적 추가 원가 반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해외 플랜트사업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9조9128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표(11조5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2024년 말 기준 44조4401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부산 남천동 주상복합(6334억원), 서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5704억원) 등 국내 수주 비중이 컸으며, 기대했던 해외 수주는 다소 지연되어 올해 수주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실적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대우건설의 올해 전망치는 매출 8조4000억원, 신규 수주 14조2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집값 6주만에 상승 전환... 매수심리도 반등

매매값 1월 셋째주 대비 0.02% ↑
재건축 추진단지 등 거래량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도 이번 주 소폭 올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셋째 주(0.00%) 대비 0.02% 상승했다. 1월 23일 이후 6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노원구(-0.03%→-0.03%)가 상계·중계동 구족,

은평구(-0.02%→-0.01%)는 증산·구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용산구(0.03%→0.05%)는 이촌·한남동, 마포구(0.03%→0.05%)는 도화·염리동 선호단지, 광진구(0.03%→0.0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강동구(-0.01%→-0.03%)는 둔촌·성내동, 동작구(-0.01%→-0.01%)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서초구(0.03%→0.06%)는 서초·잠원동 재건축 예정단지, 송파구(0.09%→0.13%)는 신천·잠실동 선호단지, 양천구(0.01%→0.04%)는 목·신

정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그린1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49㎡가 4억9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매매가격(5억2300만원) 대비 3000만원 하락했다.

반대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는 1월 전용면적 60㎡가 22억원에 거래되면서 2024년 5월(20억6000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2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8로 1월 셋째 주(96.4)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나 이번 주 상승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은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iw13@

KB라이프생명

VIP 대상 자산관리 KB STAR WM 출범

KB라이프생명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2025년 'KB STAR Wealth Manager(KB STAR WM)'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VIP(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부동산, 자산승계, 법인경영 등의 분야에서 종합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KB라이프의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종합금융 전문가 조직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중국에 쏟아진 트럼프 관세폭탄

삼성·LG, 글로벌 인프라 대응

美·中 등 관세전쟁 본격화
韓 기업들 글로벌 전략 변화
생산물량 일부 이전 검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중국이 1차 목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대부분을 생산하는 애플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숨고르기'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당장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가전 기업 등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0시 1분 (미국 동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해온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발효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한 달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부분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단기간 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의 아이폰 물량 85%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다. 이번 관세 조치가 아이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아이폰 가격이 오를 경우,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번 관세 부과에서 1차 표적은 피했지만 이는 숨고르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IT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보편 관세 적용을 선거 공약으로 주장해왔던 만큼, 조만간 다른 국가로도 추가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 정부가 한 달 사이 멕시코와 국경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관세 부과 위협을 다시 꺼낼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부분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의 접경 도시인 멕시코 티후아나와 케레타로에서 TV와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도 멕시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에서 가전과 전장을 생산하고 있다. 결국 멕시코를 비롯해 캐나다 등에도 공장을 둔 가

전, 배터리 기업 등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가전업체가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세탁기에 20~50% 관세 폭탄을 맞는 경험을 하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한 만큼, 이번 2기에서는 대응력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케레타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조기 등 일부 물량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CES 2025 기간간담회에서 "삼성엔 아시아시피(전 세계) 공장을 꽤 많이 갖고 있다"며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냉장고 등 일부 물량을 미국 테네시주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태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23일 컨퍼런스콜에서 "관세인상 수준이 본질적인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의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 본격 진출

북미 사옥에 스튜디오 개소

LG전자가 초고화질 마이크로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LG MAGNIT)'를 통해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 선점에 나선다.

LG전자는 6일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북미 사옥에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스튜디오를 열었다고 밝혔다.

LG전자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는 가로 7.2m, 세로 2.7m 규모의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LBAG 015-G3)가 설치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통하는 마이크로 LED는 머리 카락 두께보다 얇은 10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LED가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자발광(自發光) 디스플레이이다. 이를 통해 선명한 화질과 높은 수준의 색재현, 정밀한 영상 처리 기술 등 차별화된 시청경험을 제공한다. 또 초록색 배경 앞에서 촬영한 영상에 컴퓨터그래픽(CG)으로 배경을 입히는 크로마키(Chroma-key) 기법보다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LG전자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무선 이어폰 신제품 '엑스튬 버즈'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버추얼 프로덕션은 LG전자 북미법인과 LG그룹 광고 계열사 HSAD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사내외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HSAD를 통해 외부 클라이언트의 단편 콘텐츠, TV 프로그램, 광고, 기업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촬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규환 LG전자 북미지역대표는 "LG 매그니트의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HD현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3兆 육박

조선·전력기기 계열사 중심 好실적

HD현대(회장 권오갑·사진)가 지난해 조선과 전력기기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는 6일 연결기준으로 연간 매출 67조 7656억원, 영업이익 2조 98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46.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진 가운데 전력기기 부문의 호조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수주량 확대와 생산 효율화를 통한 건조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9% 증가한 25조 53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영업이익 또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전년보다 408% 증가한 1조 4341억원을 거뒀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023년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



로 발생한 이례적인 호황의 역 지지효과 및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1%, 40.3% 감소한

7조 7731억원과 4324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친환경 연료 공급 확대, 공장 가동 효율화 등을 통해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0조 4686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58.2% 감소한 2580억원을 기록했다.

전력기기 부문의 HD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충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가 더해져 매출 3조 3223억원, 영업이익 6690억원을 거뒀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 및 전력기기 부문의 양호한 실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이윤모 "EX30 등 韓 시장 전동화 모델 확대"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

볼보자동차코리아 간담회

이 대표 'EX30' 소개... 경쟁력 자신
"볼보의 10년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

"EX30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10년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볼보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을 소개하고 회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전기 SUV EX30의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총 1만 5051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4위 자리를 수성한 볼보코리아 자동차는 전동화 모델을 추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016년 올 뉴 XC90을 시작으로 뉴 XC60, 올해에는 뉴 XC40을 출시하며 XC라인지를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3000여대 미만의 판매량에서 지난해 5배 이상 늘리며 국내 수입차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이 대표는 "2016년 XC라인업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은 물론 질적 성장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진정한 스웨디시 프리미엄의 가치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가 4일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EX30과 함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10년간 한국에 3700억원을 투자하며 서비스센터 구축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4년 14개에 불과했던 서비스센터는 2024년 39개로 늘었다. 워크베이드 2014년 50개에서 2024년 233개로 확대하며 고객 서비스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경쟁 브랜드 대비 적은 수치지만 차량 판매 대수 등을 비교하면 부족함이 없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춘 신형 전기차 EX30을 앞세워 올해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톱4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EX30의 품질과 제품 경쟁력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받은 상태다. EX30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10만

대 판매된 인기 차종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7만 8032대가 판매돼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렸다.

EX30은 후륜 기반 모델로 66kWh(킬로와트시) 배터리와 200kW(킬로와트) 모터를 장착해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35kg·m의 힘을 제공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가 걸리며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351km다. EX30의 차세대 안전 공간 기술은 유럽의 신차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인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첨단 안전 시스템은 볼보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 안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한 모델은 EX30이 유일하며 유럽에서도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X30이)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앞으로 10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월 중 EX30 코어 트림을 4755만 원, 울트라 트림을 5183만 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개했던 가격에서 최대 333만 원 할인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소비자가 EX30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했다"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 세계 어떤 시장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데이터포털 확대 운영

빅데이터 활용 업무시스템 강화

현대모비스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 강화로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전환한다.

현대모비스는 전사적으로 생산과 구매, 연구개발 등 경영 전반에서 총 1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100여개 업무시스템과 연계된 1만 6000여개의 카테고리 데이터를 데이터맵 형식으로

해당 포털에 구축했다. 각 카테고리 데이터와 연계된 세부 데이터들을 포함하면 이 포털을 통해 수십만개에 이르는 방대한 업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데이터맵은 분산된 100여개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구조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데이터맵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30만여개에 이르는 용어를 표준 용어 3만여개로 재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SOOP, IP 전략으로 반전 노린다... 플랫폼 생존 모델 될까

〈숲〉

토종 스트리밍, 차별화 전략 필수
SOOP, '보이는 라디오'로 차별화
IP 콘텐츠 강화, 글로벌 확장 노림수
네이버·카카오처럼 IP 수익 필수

스트리밍 플랫폼업계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기업들이 각자도생으로 생존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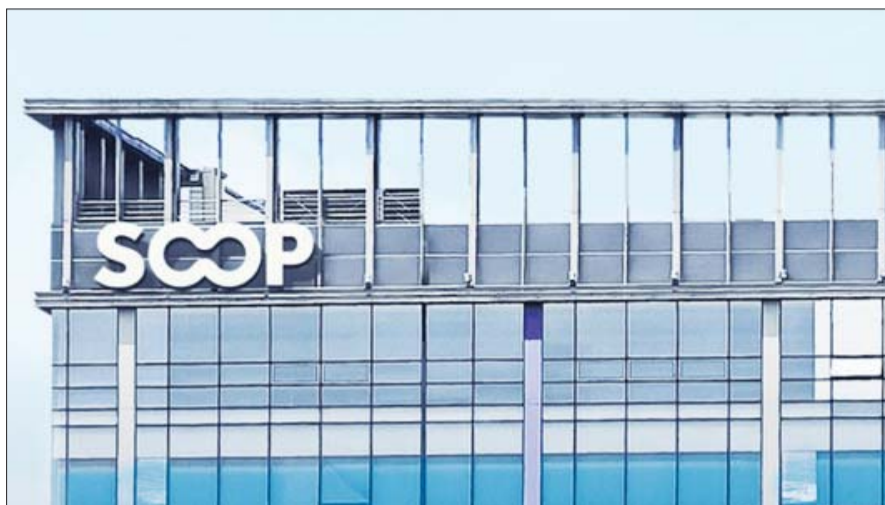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숲(SOOP, 옛 아프리카TV)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숲의 주가는 장 초반 11% 넘게 급등하며 12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숲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숲, '보이는 라디오'로 전환...플랫폼 경쟁력 강화

숲은 1인 방송 플랫폼 'SOOP' 커뮤



숲(SOOP, 옛 아프리카TV)의 사옥 전경.

/SOOP

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사업 구조를 대폭 재편하며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숲은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기업 프리콩과 오픈스튜디오 베트남 법인을 연이어 청산하며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

프리콩은 2018년 숲이 인수한 콘텐츠 제작사로, 웹 예능·애니메이션·라이브 커머스용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충성도 높은 고객층 부족 ▲콘텐츠와 커머스의 자연스러운 결합 실패 ▲차별화된 수익 모델 부재 등의 한계로 인해 결국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

숲은 프리콩을 활용해 IP 기반 라이

브커머스 시장에 도전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사업 철수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숲의 초기 전략이 시장 내 포지셔닝에서 약점을 드러냈으며, 콘텐츠 경쟁력과 차별화된 수익 모델 확보에 실패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SOOP의 최근 전략 변화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e스포츠 및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트래픽을 확보하고, 가상(버추얼) 스트리머를 활용해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펼쳤으나, 최근

에는 '보이는 라디오' 중심의 콘텐츠 다변화에 집중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SOOP의 글로벌 전략 변화로 인해 실적 훼손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글로벌 성과가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SOOP이 향후 스트리머 확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토종 스트리밍 플랫폼, 생존 위한 실험 지속

글로벌 시장에서 유튜브·트위치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들은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가운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엇갈리고 있다.

유튜브와 트위치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슈퍼챗·유료 멤버십·광고 수익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틱톡은 숏폼 콘텐츠와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킨터엔은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드라마·영화·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CJ ENM 역시 방송·영화·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종합 콘텐츠 전략을 통해 IP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강력한 IP 보유 ▲글로벌 확장성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다. 반면, 프리콩과 같은 소규모 콘텐츠 제작사는 유통 채널과 IP 경쟁력이 부족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다.

숲의 사례는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 커머스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숲의 사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콘텐츠 IP 사업과 라이브커머스 모델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차별화 전략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온디바이스 AI로 스마트폰 통신 개선

AI 기반 다중 안테나 기술 개발
스마트폰 안테나 최대 8개 확대

SK텔레콤은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홍원빈 교수팀과 공동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안테나 개수를 늘려 통신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실증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파수 환경과 스마트폰 크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에 통상적으로 탑재되는 4개의 안테나를 최대 8개까지 늘려 데이터 전송 품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100만 가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변수에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이용자들의 자세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안테나 성능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다중 안테나 확장 시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연구는 AI



SK텔레콤 연구원과 홍원빈 교수팀이 포스텍 연구실에서 해당 기술을 시험하는 모습.

/SKT

를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SKT는 실증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안테나 수가 많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온디바이스 AI가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간섭을 최소화해, 안테나 성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했다.

SKT는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된 이번 실증에서 글로벌 통신 계층 장비 회

사인 안리쓰의 측정 장비를 활용해 기존 스마트폰과 동일한 조건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SKT는 이번 기술을 고도화해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나아가 칩셋, 부품사,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ngja.tea@

CJ ONE 적립하면 NOL 포인트 '덤'

CJ올리브네트웍스, 양사 혜택 강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야놀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놀유니버스와 함께 양사 회원의 혜택 강화를 위한 멤버십 제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CJ ONE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야놀자 플랫폼과 서비스 제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6일부터 CJ ONE 회원은 CJ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CJ ONE 포인트를 적립하면 NOL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

된다. 1회 최대 추가 적립 포인트는 1000 포인트로, 추가 적립된 NOL포인트는 CJ ONE 앱에서 포인트 전환 신청 후 야놀자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J ONE 포인트로 야놀자 플랫폼에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국내 숙소 및 해외 호텔은 물론 레저, 기차, 고속버스 예매 등에 사용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웹툰, '여신강림' 애니 시즌2 방영

전 세계 200여개국 서비스 제공

네이버웹툰의 영상 자회사 스튜디오 N이 북미 애니메이션 플랫폼 '크런치롤'에서 '여신강림' 애니메이션 시즌2를 방영한다고 6일 밝혔다.

크런치롤은 1억2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최대 애니메이션 플랫폼으로 전 세계 200여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작 웹툰 '여신강림'은 평범한 여고생 임주경이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 이야기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영어와 일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서비스되며 글로벌 누적 조회수 64억 회를 기록했다.

이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즌1은 지난해 크런치롤을 통해 북미, 중남미, 유럽, 인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방영됐으며 드라마 장르 5위, 전체 시청 순위 20위권에 오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일본에서도 '유·넥스트' 등 10여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지난해 10월 첫 방송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혜민 기자 hyem@

LG CNS, SAP 아·태 지역 전략 파트너 합류

클라우드 ERP 사업 확대 본격화

LG CNS가 국내 기업 최초로 SA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서비스 파트너(RSSP) 이니셔티브에 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RSSP는 SAP가 아태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자원관리(ERP)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 부여하는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이다. SAP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고려한다. LG CNS는 일본의 후지쯔, 에이비 컨설팅, 베트남 FPT 소프트웨어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네번째 SAP 핵심 파트너가 됐다.

이번 RSSP 이니셔티브 협약을 계기로 LG CNS는 국내를 넘어 아태지역으로 클라우드 ERP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 CNS는 2023년



SAP 크리스찬 클라인 CEO(왼쪽)와 LG CNS 현신균 대표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LG CNS

독일 발도르프 소재 SAP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클라우드 ERP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김서현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1조 클럽’ 증권사, 최대 5곳 넘을 듯… 대형사 위주 호조세

키움증권,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982억… 전년 대비 94.5% 늘어 한투·미래에셋증권도 1조 달성 전망 중소형사 실적부진은 올해도 지속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증권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 비해 중소형사들의 실적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증권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1조원대 영업 이익을 기록한 증권사가 최대 5개사 이상 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형사 위주의 실적호조세가 돋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4.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1조2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8349억원으로 89.43% 늘었다. 삼성증권 역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증권사 위주로 영업의 1조원을 달성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미지.

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20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늘며 각각 1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역시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7447억원에 달해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상장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1조원을 다시 기록한 것은 3년 만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역대급 ‘동학개미’ 열풍 속에서 미래에셋, NH투자, 삼성,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빅

5’ 증권사가 1조 클럽에 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에 글로벌 금리 인상과 증시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겹치면서 이들 모두 1조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해외 주식 거래대금 증가가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가량 감소한 반면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3년 2880억달러에서 24년 5308억달러로 약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중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인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 여기에 부동산 PF 총담금과 해외 투자 자산 손상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은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순이익

도 362억원으로 32% 줄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로 45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영업손실 755억원, 당기순손실 454억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시장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통적인 IB 부문에서도 대형 증권사에 밀려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며 “해외 주식 중개 시장에도 진입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무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 인하로 부동산 PF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대형 증권사가 먼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 중소형 증권사의 회복은 다소 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이복현 “국내증시 장기투자 기반 확충 방안 마련”

韓증시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회
연금자산 투자촉진 위한 규제개혁
배당세제 등 각종 세제 개선 지원 필요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 지원, 주주친화적 정책 강화 등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등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하는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 등이 모여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내 증시는)특정 산업 편중과 혁신산업 성장 지원,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기초 체력)에도 직접적

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회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과 병행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연금 자산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자산이 해외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배당세제를 비롯한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유 토론회에서도 장기투자 유도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완태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같이 목적성이 뚜렷한 장기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성장과 국민 노후 재산 증식의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주 환원율을 높여 가계 자금 등이 자본시장으로 유도되도록 세제 혜택, 연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애 주기에 걸맞는 자산 형성 전략을 위해 더불어 주니어 ISA 도입을 새롭게 제안했다. 주니어 ISA란 만 18세 이하 거주자(일반 ISA 가입자 제외)를 대상으로 ISA 납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발생 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다. 만 18세까지 유지한 뒤 19세 이후 인출할 수 있으며, 일반 ISA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생애 주기에 맞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다양한 패키지로 존재했다면 좋겠다”며 “영국에서도 주니어 ISA를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아동 발달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일본 역시 과거 단기적으로 주니어 ‘니사(일본판 ISA)’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노년을 위한 노년 자금, 미래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자금 등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애 주기 패키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금투협·거래소 등 ‘딥시크 차단’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보안 이슈

정부 부처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내부 공지를 통해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다고 알렸으며, 금융투자협회도 보안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던 3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정부에서 AI 업무 활용

시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 강조하면서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코스콤도 거래소와 같은 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주의 공지를 내렸다. 코스콤 관계자는 “설 연휴 직후(1월 31일) 딥시크 사용 주위에 대한 최초 공지를 내렸고, 이달 5일 보안유에 대해서도 공지했다”며 “현재 사용 차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딥시크 접속 차단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말부터 바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보안 이슈와 서비스 모델이

사양에 맞지 않아 이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 등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달 들어서는 다올투자증권과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아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증권사들 역시 내부적으로 사용 주의 및 차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6일 내부 논의 끝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 자체를 권고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등도 관련 사항을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하은 기자

예탁원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47.9조”

전년 대비 78.06% 늘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이 47조9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8.0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익배당금은 펀드가 매 회계기간 종료 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금액이다.

이익배당금 중 공모펀드는 7조2027억원으로 65.54% 늘어났고 사모펀드는 전년 대비 80.47% 증가한 40조7251억원을 기록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 수는 공모펀드 2505개, 사모펀드 1만5771개로 각각 29.93%, 8.62% 증가했다. 펀드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특별자산형 공모펀드의 이익배당금은

9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9.08% 감소했다. 이외에 다른 유형 펀드들의 이익배당금은 증가했다. 특히 재간접, 파생상품투자형 펀드가 포함된 기타 펀드의 이익배당금은 4148억원으로 127.66% 늘었다.

지난해 이익배당금 재투자금액은 26조2743억원으로, 이익배당금의 54.82%에 달했다. 재투자금액 중 공모펀드는 6조5300억원, 사모펀드는 19조7443억원으로, 재투자율은 각각 90.66%와 48.48%다.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가 곤란한 부동산·특별자산형 이익배당금 비중이 높아 재투자율이 낮았다.

/원관희 기자

“50~60대 중장년층 15만명에 3년간 재취업 맞춤형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폴리텍대 등과 자격증 취득 돕고
‘경력지원사업’ 신설 일경험 제공
경력전환형 일자리 6000개 발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층과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 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퇴직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장년층이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연간 3만 5000명, 3년간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중장년내일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고용노동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장년층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퇴직 후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원하는 기술직·전문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6개 이상의 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여 3년간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중장년층과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성공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4년간 1870억 투자

산업부, 청년문화센터 등 조성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4년간 187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7일 산업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산림청의 산단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

랜드산단조성(랜드마크)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브랜드)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산단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설+시설) 청년문화센터(산업부) + 직장어린이집(고용부) ▲(시설+인프라)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산업부) + 산단 주변 도시숲(산림청)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코트라, 밀라노 섬유전시회 참가

30개 기업 참여 한국관 운영
첨단 기능성·천연소재 제품 선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6일까지(현지 시간) 사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유니카 춘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5 S/S)’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파리 프레미에르비종과 함께 세계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전시회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출품이 가능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섬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 전시회다.

코트라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공동 조성한 한국관에는 3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능성 제품과 친환경·천연 소재를 결합한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의류용 합성피혁 제조사 D사의 경우 20년 이상 기술력으로 통기성과 드



산업부와 코트라는 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 유니카 춘계 섬유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코트라

레이프성(Drape)이 우수한 램스킨 원단을 출품, 글로벌 브랜드 H사와 약 8만유로 상당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패션 교육기관인 마랑고니 스쿨과 협업해 국내 기업 원단으로 제작된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한국 섬유를 경험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출범... 원장에 성시현



산업부, 국내 첫 엔지니어링 전문기관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연구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국내 첫 전문 연구기관이 출범했다. 초대 수장은 성시현(64·사진)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초대 원장에 선임된 성 전 산기평 원장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산업부에서 근무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2013~2015년)도 역임한 산업기

술 전문가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25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소식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아파트 인근 녹지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권익위, LH·지자체 등에 개선 권고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 녹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 69건 중 21건(30.4%)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원은 지자체,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어려워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무허가 씨앗 거래의혹 업체 69곳 적발

국립종자원, 위반사항 검·경 조사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69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畝)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종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

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초·중등 교사 3060명 감축 예고 “과밀학급·교육 질 저하 우려” 반발

행안부, 교원 감축 관련 개정안 입법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감축 추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조정해야
고교학점제 시행에 교사 증원 필요

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사를 3060명 감원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과밀학급 규모가 여전히 높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교사 수를 줄일 경우 교육 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이 감축된다.

당초 초·중·고교원 정원 감축 인원은 초등 2424명과 중등 2443명을 합쳐 4867명이었지만,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500명)과 학교 설립·폐교 등 과밀학습 해소를 위한 교사(1307명) 등 총 18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면서 실제 올해 감축 규모는 4867명에서 1807명을 뺀 3060명이 됐다.

조정분을 반영하면, 올해 초·중·고교원 과 중등교원 정원은 각각 14만 4146명, 13만 6329명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2025~2031)’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02만 1845명에서 내년 484만 4655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세



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사를 3060명 감원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투이미지

가 지속되면서 ▲2027년 467만 1904명 ▲2028년 450만 2811명 ▲2029년 429만 7808명 ▲2030년 407만 7296명으로 줄다가 ▲2031년엔 383만 5632명으로 4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원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지만, 이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정원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도 교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lhj@metroseoul.co.kr

만기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 공급

서울시, 내년부터 연간 4000호 예정

서울시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장기 전세 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불리는 공공임대 주택인 장기 전세 주택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것으로, 오는 2027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시는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 내 집을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리 내 집은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자가를 마련할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이다.

출산 혜택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입주한 뒤 3자녀 이상 가구가 되면 거주 3년 차부터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입주 이후 2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다.

또 해당 가구는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를 얻게 된다. 종전에는 20년 거주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던 집을 매수할 수 있었다.

시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 연간 4000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하남시, “‘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용해요”

미사·하남풍산 등 4개 역사 확대
“경기도민 불편 덜고, 교통복지 향상”

지하철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에서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기후동행카드로 하차만 할 수 있었던 하남 지역 4개 역사에서 승차도 가능해졌다.

이날 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누적 충전 756만건, 활성화 카드 수 70만장, 일평균 사용자 수 60만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기후교통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하남시와의 협약으로 서울시와 연담화된 경기도 지방자치단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6일 오전 하남시청에서 열린 서울시-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체 대부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생활권 인접 지자체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경기도민의 불편의 덜고, 교통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마음건강도 교육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 체결
고위험군 학생, 치료·가족상담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회장 서완석)와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 진행된다.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제안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상담 및 치료 연계 ▲고위험 학생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기 학생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정기적인 협업체를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

갈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위기학생을 심층 평가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와 가족상담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 후에는 학교 복귀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와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방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학생 친화적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손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상담 접근 문턱을 낮췄다.

/이현정 기자 lhj@

파주시 “마을버스 하루 동안 무료 운행”

매년 2월 11일 ‘대중교통의 날’ 지정

파주시는 매년 2월 11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며, 교통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오는 11일에는 파주시 관내 모든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파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선포 및 파주형 급행 시내버스(PBRT) 개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교통안전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파주시 교통 혁신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파주시는 「파주시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월 11일 하루 동안 파주시 모든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첫차부터 막차까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마을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해운 파주연장 확정과 지티엑스(GTX) 개통을 계기로 경기 북부의 교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버스노선 전면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확대, 푹버스·천원택시 확대 운영 등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파주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호선 연장, 통일로선, KTX 문산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H 노선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서울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파주시를 경기 북부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중교통의 날 선포를 계기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교통 혁명은 미래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며,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산은 부산 이전, 2년째 계류 중... 부산상의, 국회청원 돌입

산은법 개정촉구 출정식 열어
탄핵정국에 동력상실 위기감
지역 경제계 절박함 전달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경제계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을 청원인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상의는 지난 5일 오후 부산상의 홀에서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인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현 국회의원 및 유관 기관장과 지역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5월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음에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한 산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계는 국회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국회 청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자 한다.

국회 청원은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 그리고 청원 요건 충족 검토로 청원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부산상의는 국회 청원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와 수도권 의존형 경제 구조 고착화로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신보호 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산업 자본 및 인프라 기반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하며 그러려면 산업 육성과 지역 개발 경험

등 축적된 정책 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하게 산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국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지역 경제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 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산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힘을 집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상의는 국회 청원의 1차 목표인 국민 동의 5만 명 달성을 위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이동 홍보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교 입학식과 대학생 OT 등 다종밀집 행사에서 현장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화순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화순군은 6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고, 307개 기관 중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화순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등의 대내 활동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이용해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한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합천군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 시행

합천군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6억 4400만원을 확보해 2029년까지 5년간 묘산면 웅기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정부의 재정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이런 합천군 바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합천(전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시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10선 지정 및 환경 조성 ▲반려동물 펫피아 조성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 추진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통영시

전기·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통영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22억 5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6550만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 150대, 전기화물 50대, 수소승용 5대의 친환경자동차를 우선 보급하며 앞으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목포 남항, 친환경 선박산업 거점 ‘주목’ 경남도, ICT 인력양성 사업평가 ‘전국 1위’

암모니아 연료공급 등 기술개발 속도
교육연구지구에 연구동 등 건립 중
국제적 경쟁력 갖춘 거점으로 도약



목포 남항 친환경선박 연구 인프라 조감도. /목포시

목포 남항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선박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목포시는 미래 친환경 경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20년부터 약 156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을 통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추진 차도선은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 중이며,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실증선박(K-GTB)도 지난해 10월 목포에서 진수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목포 남항 교육연구지구에 준중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동이 준공됐으며, 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평가
2년 연속 차지... 국비 4.3억 확보

경상남도과 경남테크노파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평가에서 경남·부산·울산 컨소시엄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비 인센티브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보통신기술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4개 권역에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동남권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1위에 선정됐다.

동남권 정보통신기술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은 지난 5년간 8059명이 수료했고 지역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106건, 자격증 취득 929건, 취·창업 성공 101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남에서는 기업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해 12개 기업에서 교육한 27명 전원이 취업해 기업과 교육생 간 접점을 마련하고 지역의 디지털 인재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 운영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공지능 특강, 네트워킹 ▲우수교육생 해외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구글·아마존(AWS) 자격증 교육 과정을 추가 운영하는 등 지역 디지털 인재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역대 성과’

130개 탈루 법인에 52.8억 추정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 총 52억 8500만 원을 추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전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포함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는데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전기 부과에 따른 매년 6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로 어려운 시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이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4204대 보급

578억 투입... 대상 확대 지원

대구시는 올해 578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총 4204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종류별로 전기차 3477대(승용차 2970대·화물차 500대·승합차 7대), 이륜차 694대, 수소차 33대다.

대구시는 전기 승용차에 최대 830만 원, 전기 소형화물차에 1360만 원, 전기 중형버스에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 승용차의 경우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되는 한편 8500만 원 이상 고가의 전기 승용차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의 청년의 경우에만 생애 최초 자동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했지만 올해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첫 삽... '진로 세계화' 전초기지

공장규모 축구장 11배, 2.5만여 평 스마트팩토리로 내년 완공 예정 연간 최대 500만 상자 생산 가능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GREEN i-PARK)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대망의 첫 삽을 떴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공장은 세계 시장의 생산·유통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각 탄(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서기장,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타이빈성 성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 약 160여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장 건립에 쏠린 현지의 관심을 증명했다.



지난 5일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왼쪽에서 여덟 번째)와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왼쪽에서 열한 번째),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왼쪽에서 네 번째), 응우옌 각 탄(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서기장(왼쪽에서 열 번째),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타이빈성 성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과 응우옌 각 탄 타이빈성 서기장은 착공식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 착공식 세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000여 평(8만20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2026년 내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최대 약 500만 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하이트진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외 소주 수출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에서 해외

첫 생산 공장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 공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세계에 '진로의 대중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



지난 5일 베트남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착공식에서 김인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주년을 맞아 베트남에서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진로의 대중화'를 통해 전 세계 주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구축해 '진로'가 증류주 카테고리를 넘어 대중이 즐기는 주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패션업계, '입춘 한파' 겨울외투 막바지 수요 잡는다

현대·신세계·롯데 백화점 한달여 간 아웃도어·패딩 매출 급증 롯데아울렛 '겨울아우터 할인전' 현대백, 23일까지 '해외패션대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 패딩 상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뉴스시스

시즌초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때문에 부진했던 백화점·아울렛 및 패션기업들의 겨울 아우터 매출이 입춘 한파와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막바지 아우터 할인 행사에 돌입하며 소비자 수요를 잡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입춘 한파가 이어지면서 아우터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노스페이스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K2와 코오롱스포츠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각각 18.1%, 14.2% 증가하며 아우터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편집숍 29CM에서도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아우터 상품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트윈드 재킷(68%), 가디건(67%), 후드집업(128%)의 매출이 급등했으며, 가죽 아우터는 140% 증가해

최고 신장률을 기록했다. 백화점 역시 아우터 수요 증가로 매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아웃도어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아웃도어 카테고리 판매량이 20% 늘었다. 롯데백화점 역시 같은 기간 패딩 매출 80% 증가했고, 기능성 패딩 상품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아웃도어 매출이 각 15%, 25% 올랐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백화점과 패션 브랜드들은 11월과 12월 연말에 겨울 아우터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12월에는 이월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상 기후로 연말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말에 집중돼야 했을 겨울 아우터 수요가 연초 이월 상품 시즌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게 한파가 시작되면서 아우터뿐만 아니라 방한용품 전반에 대한 소비도 이제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춘 한파로 아우터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자, 백화점과 아울렛들은 겨울 아우터 할인 행사를 열어 고객 유치에

나섰다.

롯데아울렛은 이달 16일까지 '겨울 아우터 할인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신상품 겨울 아우터를 특별가에 제공하며, 총 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스노우 피크의 '유틸리티 스탠드넷 헤비 다운 재킷' 등 8개 인기 아우터를 롯데아울렛 단독으로 최대 30% 할인하며, 아이더의 2024년 가을·겨울 인기 상품 '스투키 M UNI 다운 재킷'도 약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3일까지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등 전국 7개 점포에서 '해외패션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딩·코트 등 겨울 이월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60% 할인하며 이자벨마랑, 토렘, 가브리엘라허스트, 엠포르오 아르마니 등 총 100여 개 해외 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겨울 의류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인기 겨울 패션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엘푸드 뽕뽕로 1800→2000원 건빙과 26종 가격 인상

롯데엘푸드가 일부 제품 가격을 2월 17일부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건빙과 26종이며, 평균 인상은 9.5%다.

건과 주요 제품으로는 가나마일드 70g을 권장소비자가 기존 2800원에서 3400원으로, 크런키 34g을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초코 뽕뽕로 54g을 1800원에서 2000원, 몽쉘 오리지널 12입을 6600원에서 7000원, 롯데 팬애플 315g을 4800원에서 5000원, 빠다코코넛 300g을 4800원에서 5000원, 마가렛트 오리지널 660g을 1만32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빙과 주요 제품으로는 월드콘을 기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설레임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다.

이같은 조치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코코아를 비롯해 유지, 원유 등 각종 원재료비와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 가공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는 시세가 폭등한 뒤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코코아 선물가격은 t당 1만2565달러(ICE 선물거래소)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코코아는 지난 수십 년간 t당 2000달러대의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는데, 5~6배 수준으로 가격이 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살펴봐도 172% 상승해 작년 원자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롯데엘푸드 관계자는 "코코아 및 유지류 등의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가공비용도 오른 상황인데다 고풍환율이 겹쳐 원재료 부담이 높은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서울탁주 63주년... 막걸리 대중화 박차

'장수 생막걸리' 韓 대표 막걸리로 월매·달빛유자 등 제품라인업 확대

대한민국 대표 막걸리 '장수 생막걸리'를 제조하는 서울탁주제조협회(이하 서울탁주)가 설립 63주년을 맞아 막걸리 대중화와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1962년 서울 지역 51개 양조장이 모

여 설립된 서울탁주는 전통 생막걸리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한민국 대표 막걸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서울탁주 소속 양조장들은 3대 이상 가업을 이어온 곳이 많으며, 공식 기록인 조선조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무교양조장'은 1909년부터 막걸리를 빚어 11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서울탁주의 대표 제품인 '장수 생막걸리'는 1996년 출시 이후 생막걸리의 본질인 '신선함'에 대한 고집스러운 원칙을 고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걸리로 자리 잡았다.

과거 가양주로 빛는 막걸리는 모두 생막걸리로 소비기한이 당일~5일에 불과했다. 현대에는 콜드체인 시스템 발달로 소비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장수 생막걸리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14일 유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장수에서 생산하는 '월매'는 살균막걸리 중 유일하게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기준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다. 프리미엄 유자 막걸리 '달빛유자'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80% 증가하며, 젊은 소비자들에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막걸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밤 원물을 활용한 신제품 '달밤장수'를 출시해 색다른 막걸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버추얼 휴먼, 반짝 인기 끝?... 높은비용·활용한계 '발목'

〈가상인간〉

메타버스 열기 시들자 활동 급감
광고·굿즈 확장 실패, 수익성 한계
영상 제작 수천만원... 비용 부담 ↑
게임사, AI기술 본업에 활용 추진

지난해까지 국내 게임사들이 대거 선보인 가상인간(버추얼 휴먼)이 어느 사이에 사라졌다.

넷마블 '리나', 크래프톤 '애나' 등이 다. 업계는 많은 비용과 활용방안을 부재의 이유로 꼽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그래픽과 AI기술로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구현된 버추얼 휴먼의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활력을 상실했다.

근간 게임업계는 기술력을 활용해 실제 인간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팬들과 소통하는 버추얼 휴먼을 제작해 선보였다. 2019년 이후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됨에 따라 매니아층들의 소비력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게임업체들은 버추얼휴먼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굿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표적인 기업이 넷마블,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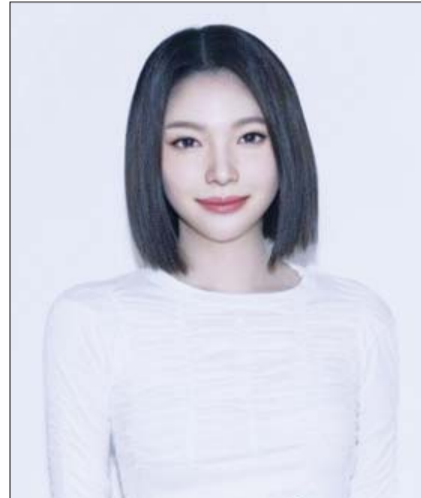
하지만 버추얼 휴먼 투자를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



스마일게이트 버추얼 휴먼 '한유아' /스마일게이트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열기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다.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도 적지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 개발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 가장 버추얼 휴먼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넷마블은 2022년 '리나'를 선보였지만 지난해 1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리나'는 방송, 음원발매, 광고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2년이 채 가지 못하고 없어진 것.



넷마블 디지털 휴먼 '리나' /넷마블

넷마블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리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리나와 같은 해에 개발된 크래프톤의 '애나'도 2023년 9월부터 활동이 없어졌다. 애나도 리나와 마찬가지로 음원, 소통 등 버추얼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버추얼 휴먼도 있다. 크래프톤에서 버추얼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위니'다. 위니는 출시 이후 1년만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나름 버추얼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넷마블 '메이브', 스마일게이트 '한유아' 등도 활동이 줄어들었다.

음원과 영상 콘텐츠들의 조회수들은 2년전과 비교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실제 메이브의 음원 '판도라'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455만회를 기록해 대성공을 기록했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는 1만을 겨우 넘어섰다.

이에 게임사들은 본업인 게임개발에 집중하면서도 버추얼 휴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AI 기술력을 활용하고 나섰다. 그간 버추얼 휴먼 개발에 투자된 막대한 비용을 게임개발에 녹이겠다는 것.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버추얼 휴먼은 한 때 큰 유행을 탔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 같다. 몇 십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기술력을 본업인 게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을 축적하겠지만 당분간 눈에 띄는 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지그재그, 당일 배송 천안·아산까지 확대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직진배송의 당일 배송 서비스 권역을 기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지그재그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천안 동남구 17개 동, 서북구 8개 동 및 3개 읍, 아산시 10개 동, 1개 읍, 2개 면까지 확대한다. 이제 충청권에서도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앞서 지그재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의 80% 이상,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직진배송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직진배송은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로, 당일 또는 익일 새벽 배송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밤 1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도착하는 일반 배송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도착하는 당일 배송 등으로 구성된다.

지그재그는 당일 배송 권역 확대뿐만 아니라 배송 출발률과 배송 보장률 등의 지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비율을 뜻하는 배송 출발률은 현재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 모두 99%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스타일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호조에 작년 흑자 전환

매출 5476억, 영업익 963억 기록
R&D 확장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 단일 매출로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K바이오팜은 6일 지난해 4분기 실적 성장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지속적인 미국 내 성장세 및 활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이룬 쾌거다.

SK바이오팜의 2024년 연 매출은 54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4.3% 급증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963

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했다.

SK바이오팜은 "마일스톤과 같은 일회성 매출의 도움 없이 세노바메이트 매출 성장만으로 이룬 최초의 연간 흑자라 뜻깊다"며 "지난해는 대한민국 혁신 신약 상업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한 해"라고 설명했다.

세노바메이트의 2024년 미국 전체 매출은 4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2%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시장에서 탄탄한 처방수(TRx) 성장세를 유지, 전 분기 대비 약 16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별 매출 증가 폭을 경신했다.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시장 입지도

넓어지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총 누적 처방 환자 수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혁신 신약 상업화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또한 브라질 신약승인신청(NDA) 신청을 시작으로 중남미 약 17개국 진출을 진행 중이다.

중국 NDA 제출을 통해 마일스톤 수익을 확보한 점도 2024년 매출 호조를 견인했다.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 파트너사들이 국가별 승인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적응증 및 연령 확장을 통해 시장 확대도 노리고 있다. 올해 내에 부분 발작을 넘

어 전진발작(PGTC)으로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임상 3상 탑라인(Top-line) 결과를 확보하고, 소아 환자의 복용을 쉽게 하는 현탁액 제형을 개발해 NDA 제출할 예정이다.

세노바메이트 후속 상업화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차세대 신규 모달리티로 선정된 방사성의약품 치료제(RPT), 표적단백질분해 치료제(TPD) 개발 및 저분자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장을 통해 포트폴리오 역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초코 우유 크림도넛. /SPC 던킨

던킨

'촉촉하고 폭신하게~' 초코 우유 크림도넛

SPC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초코 우유 크림도넛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초코 우유 크림도넛'은 던킨만의 노하우로 만든 촉촉하고 폭신한 도넛 속에 부드러운 초코 우유 크림을 가득 채운 제품이다. 여기에 크림 모양의 초코 사인판을 올려 귀여운 비주얼까지 더했다.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초코와 부드러운 우유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에게 큰 사랑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크림도넛 시리즈의 새로운 플레이버다. 발렌타인·화이트데이 등 기념일 시즌을 겨냥해, 겨울철 선호도가 높은 초코 플레이버와 우유 풍미로 부드럽고 진한 달콤함을 강조했다. 우유·딸기요거트·바닐라 슈로 구성된 기존 크림도넛 라인업을 한층 더 확장했다.

비알코리아던킨관계자는 "기념일 시즌을 맞아 특별한 날 즐기기에 좋은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 승소

"2031년까지 개발사 권리 보호"

HK이노엔은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물질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특허심판원뿐 아니라 2심 특허법원까지 오리지널 제품을 개발한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판결은 HK이노엔이 개발한 케이캡의 적응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제균 요법'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적응증은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억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케이캡 물질



HK이노엔 '케이캡' 제품군. /HK이노엔

특허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이는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하게 특허법 제95조의 '용도'는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결과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은 지난 2019년 출시부터 현재까지 국내 소화

성 위양용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2000억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K이노엔은 케이캡 발매 후에도 적응증을 확장하고 제형을 변경하는 등 후속 연구개발로 케이캡 경쟁력을 지속 강화했다.

그 결과,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케이캡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제품인 케이

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 왔다. 해당 회사들은 앞서 연장된 케이캡 물질특허의 효력이 케이캡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HK이노엔은 "제네릭 개발사의 주장은 케이캡 물질특허 원존속기간 만료 직후인 2026년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로, 향후에도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국산 신약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tok tok)



©후카후카스튜디오의 스마트톡 시리즈인 톡톡은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가장자리에 등글림 작업을 하여 사용 시 날카로움이나 거슬림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감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작 방법으로 거슬림을 없애고 입체감은 살린
 후카후카스튜디오만의 특별한 톡톡을 만나보세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한전,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등 상생 일자리 창출 '앞장'

지역 장애인체육회 등 업무협약 체결
안중은 부사장 "지속적인 활동 지원"

한국전력이 장애인 체육선수 인턴 59명을 채용하는 등 상생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5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전남 장애인체육회·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인턴 채용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과 체육활동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앞으로 장애인 체육선수 59명을 채용해 상생의 일자



한국전력은 지난 5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전남 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리를 확대하고, 전남·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선수 추천과 훈련을 지원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중은 한전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과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

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활동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의 따뜻한 동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iM뱅크, '저출생 위기극복 챌린지' 동참

iM뱅크는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가운데)이 직원들과 챌린지 내용을 알리고 있다. /iM뱅크



삼성중·재료研, 소재 기술개발 맞손

삼성중공업은 한국재료연구원과 원자력, 초극저온 등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최성안 대표이사(왼쪽)와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천 원장이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오비맥주-서원구, 자원 선순환 실천

오비맥주가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와 '자원 다 있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원 선순환 실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민철 서원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 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현대차그룹, 'CSR 매거진' 오픈 (사회공헌)

이동 등 CSR 3대 중점 영역 소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 사회공헌(CSR)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대차그룹 CSR 디지털 매거진'을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CSR 디지털 매거진'은 최신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새롭게 개설했으며 모바일,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직관적이며 몰입도 있는 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의 CSR 3대 중점 영역인 ▲이동(Free Move) ▲안전(Safe Move) ▲친환경·미래세대(Sustainable Move)를 순서대로 나열했으며, 각 배너를 클릭하면 영역별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새롭게 오픈



새롭게 오픈한 '현대차그룹 CSR 디지털 매거진' 메인 화면 속 나열된 CSR 3대 중점 영역.

한 디지털 매거진을 통해 우리 사회를 향한 현대차그룹의 노력과 실천이 언제 어디서든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친환경 소재 등 '기술공모' 개최

전선 산업 신기술 개발 계획

LS전선이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LS전선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5회 기술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LS전선은 국내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핵심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매년 '기술공모(Open R&D)'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케이블 소재 재활용, 배터리 시스템 소재 등 전선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생산 과정에 접목할 디

지탈전환 기술 연구도 병행한다.

주요 공모분야는 ▲EV 전장 배터리 시스템 소재 ▲전력케이블 친환경 소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로봇·비전·테라헤르츠 활용한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술 등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LS전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현정 기자 hyeon@

송병준 의장, 벤처기업협회장 단독 입후보

(컴투스그룹)

회장추천위, 후보자 검증절차 돌입

송병준 컴투스그룹 의장(사진)이 제12대 벤처기업협회(벤처협) 수장직에 입후보했다.

벤처협은 송 의장이 제12대 벤처기업협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고 6일 밝혔다.

벤처협은 이달 말 성장업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지난해 12월 후보 등록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달 말까지 재공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송 의장이 출사표를 내면서 현재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의 후보자 검증 절차가 시작했다. 회추위에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벤처협은 오는 19일 이사회와 28일 정기총회를 통해 송 의장의 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송 의장은 현재 컴투스, 컴투스홀딩스, 위지익스튜디오 의장을 맡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거래소, 불법 리딩방 근절·피해예방 팔 걷어

금감원·경찰청과 공익캠페인 실시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등을 담아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거래소·금감원·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제공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0 | 해질 / 18:02

2월 7일 (금) 음력 : 1월 10일

수도권 날씨 **-1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5/-6, 동두천 -15/-6, 가평 -15/-5, 파주 -15/-7, 서울 -12/-6, 양평 -15/-6, 인천 -12/-6, 수원 -12/-6, 용인 -12/-6, 평택 -12/-4, 백령도 -8/-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중소기업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노동석

◆경기신용보증재단 ◇1급 △중부영업본부장 김춘기 △남부영업본부장 김현주 △마케팅본부장 김재명 △부천지점장 조원희 △구리지점장 최민호 △이천지점장 신두수 ◇2급 △동부영업본부장 이준환 △북부영업본부장 심규철 △전략기획실장 이동규 △보증금융부장 손창희 △재기지원센터장 김무철 △용인지점장 권기석 △남부채권관리센터 부센터장 배무현

◆KBS △경영본부 수신료국 수신료기획단장 서병철 △수신료운영부장 양석원

부음

▲신시호씨 별세, 신해군(한미약품 상무)씨 부친상 = 안동병원장례식장 10분향실, 발인 8일, 054-840-0030

▲이홍일(전 광주시의원)씨 별세, 이성학·승연씨 부친상, 노함미(전남도청 사무관)씨 배우자상 = 6일,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만평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8일, 062-611-0000

▲이동휘(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향년 58세)씨 별세, 양은옥씨 남편상, 이수정·이수경씨 부친상 = 6일 오전 7시, 안양장례식장 10호실, 발인 8일, 031-456-5555



SGI서울보증, 아이들과미래재단 후원

SGI서울보증은 지난 5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SGI 파란꿈 희망파트너'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심성보 SGI서울보증 전무이사(오른쪽)와 김효승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전기협회-종로구청, 전기역사 알린다

대한전기협회와 종로구청은 6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전기역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Toytron, Sunwoo&Company All rights reserved.



내동생은 천하무적

뮤지컬

반짝반짝 달님이

2025.02.07(금) ~ 03.02(일) 서울 상상나라극장

주최 | 이지기획 SUNWOO & COMPANY

제작 | BLUE MON STUDIOS 주식회사 지키페

홍보마케팅 | ETC COMPANY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정녕 'AI푸어'가 되려는가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디지털 푸어’처럼 AI(인공지능)도 ‘AI푸어’를 만들 수 있다” 재벌 회장중 AI에 가장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한 방송사 대담프로그램에서 한 말이다.

디지털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디지털 푸어’로 구분했듯이 AI도 이를 잘 활용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차별적 효과를 얻는 사람과 오히려 희생되고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형태의 사람들이 생기는 ‘AI디바이드(격차)’가 생길 것이라 말한다.

비단 사람 생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사의 주요 기술들은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에 뒤처진 집단과 나라는 어김없이 쇠퇴하거나 지배를 당했고 많은 경우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기술혁명의 관점에서 AI는 인류생활의 변화나 경제적 진보 뿐만 아니라 미래 지구촌의 헤게모니를 바꿔놓을 거대한 트리

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의 보편화가 가져온 현대사회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 관측이다. 최태원 회장은 AI 디바이드, AI푸어가 사람 개개인에 적용되는 현상을 빚었지만 이는 지엽판단적인 것임을 암시했을 수 있다. AI 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이를 갖지 못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AI개발에 십수년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현재 기술경쟁력에서는 중국이 다소 뒤처지만 특히 규모에서는 미국을 이미 압도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AI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0만2000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최근 10년간 출원된 생성형AI 관련 특허도 전체 5만4000건중 중국이 70%선인 3만8210건으로 미국의 6200여건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점은 14억명의 인구와 방대한 시장, 탄탄한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인터넷검색 시스템 ‘만리방화벽’과 CCTV 대중감시시스템 ‘스카이넷’ 등을 운영하며 미국을 능가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 중이다. 만약

중국의 저비용AI가 각국에 빠르게 확산된다면 AI주권은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딥시크 R1에 차단경보를 내리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기본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관련법 입법국가가 됐다. 2027년까지 ‘AI3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최근 냈다.

그러나 정부의 실행의지는 너무 빈약해 보인다. 올해 AI 관련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7%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관련 예산 29조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동안 AI데이터센터에 5000억달러(72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중국도 올해 예산의 0.68%인 1917억 위안(39조원)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배정했다. AI기술은 과거 어떤 기술혁명보다 파괴력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로만 ‘세계 3강’으로는 ‘AI식민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skc8472@metroseoul.co.kr

바빠 움직이는 지구촌... 잠잠한 韓



기지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미국 정권교체 탓인지 지구촌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한반도 주변국 시계바늘도 바빠 돌아가는 느낌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관세전쟁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다. 이들 경제대국끼리 맞닥뜨리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미국 대통령 만나 워싱턴 D.C.를 찾는다. 한국 대통령은 구치소와 현재를 오간다. 트럼프의 2기 취임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씩씩한 기분은 펼쳐 내기가 어렵다.

지난 2023년 한국과 일본 경제성장률이 엇비슷해졌다는 소식은 언론사들이 떠들썩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당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파다했다. 다행히 우리가 연간 기준 추월은 허용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수치에서 종종 뒤지고 있다.

성장률에서 한국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데다, 해당 2개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뒤처졌다. 2분기 한국 -0.2%(역성장), 일본 0.5%에 이어 3분기 한국 0.1%, 일본 0.3%로 집계됐다.

한국 GDP는 4분기에도 고작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에 0.2%만큼 줄었다가 3~4분기 다시 도합 0.2% 늘었으니 4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에 머문 것이다. 일본의 4분기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줄곧 우리에 앞서 있다. 최근에도 작년 2분기 0.7%,

3분기 0.8%, 4분기 0.6% 등이다. 아직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도 아니고 일본·미국과 비교해 성장률이 앞지락뒤지락하거나 뒤지는 상황은 문제가 커 보인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경제규모가 우리의 갑절이 넘는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 2~4분기 3개 분기 성장률이 각각 0.8%(도합 2.4%)에 달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같은 기간 0.5%, 0.3%, 0.4%를 기록했다.

국제무대 성적표가 참 초라하다. 12·3사태에 따른 사건들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 3분기만 봐도 한국 성장률은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인 0.5%에 못 미친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보다도 밑에 자리했다.

/kys@

오늘의 운세 2월 7일 (음 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48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한다. **60년생**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72년생**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이다. **84년생** 겨울은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지금이라도 미래대비를.



37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49년생** 손풍에 뒤편에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다. **61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73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85년생** 양다리를 접으니 왠지 마음은 편안하다.



38년생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50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알도록. **62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74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성공이 눈앞에. **86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



39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5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63년생** 가족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75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87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정황은 신야야 한다.



40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52년생** 조상님 말씀에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우기지 마라. **64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노력. **76년생** 사랑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88년생** 배우자가 월급을 나눠주니 고맙다.



41년생 도박성 투자는 금물. **53년생** 중요한 연락이 오니 우편물을 꼭 확인. **65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77년생** 월요일 날 신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8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니.



42년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척. **54년생** 친구와 대립이 생기니 조심. **66년생** 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나 귀하게 여겨라. **78년생** 관에서 장하금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공부하자. **90년생** 저축으로 생활의 전환기를 가져보라.



43년생 예습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은 거의 없으니 기획해보라. **55년생** 거짓말 빼고 사랑도 배워가며 하는 것. **67년생**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자. **79년생** 성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91년생** 여자직원과 의견충돌을 주의해야만.



44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56년생** 결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68년생** 생가는 대로 내려버리는 것이 좋다. **80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아보자. **92년생** 조직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에 이롭다.



45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57년생** 먹는 것 갖고 싸우나 돈 갖고 싸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69년생** 온통 세상이 꽃동산이다. **81년생** 꿈이 있다면 늑지 않는다. **93년생** 남편 말에 언중유골(言中有骨)을 상세하도록.



4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는 것이 순리이다. **58년생** 길에도 양보가 있듯이 운전 때 차량 양보. **70년생** 원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도록. **82년생** 자동차 타는 먼 여행을 금하고 천천히 행동. **94년생** 친구 따라 도박판에 가는 일이 없도록.



47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59년생** 능력 부족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 아프다. **71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3년생** 면접에서 떨어지면 차선책을 선택하자. **95년생** 상식보다는 지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결과가 좋다.



김상회의四季

자식 걱정하는 부모와 취업운

경기 불황과 계속되는 취업난에 자식 걱정하는 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높다. 며칠 전 찾아온 모친도 딸이 취업을 못 해서 걱정이 많이라며 취업운을 궁금해했다. 딸은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전공이 문과 쪽이었다. 기자가 되고 싶다면 언론사 입사를 공부 중이라고 했다. 언론사는 채용하는 인원도 그리 많지 않고 언론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딸은 2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한다. 막막하기만 한데 딸 아이가 원하는 언론사에 취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입사가 조금 수월한 분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딸 사주를 보니 월주에 양인이 있고 일주에는 편관의 세력이 강했다. 양인은 고집이 강한 성향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추진력이 좋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넘치고 에너지가 강해서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아붓는 스타일이다. 기운이 강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쌓인 스트레스 역시 강해서 스스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폭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주의 편관 또한 기세가 강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한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딸은 사주로 봐서는 타고난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에 취업하면 능력을 발휘해서 업계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자질이 있다. 취업을 할 수 있었냐가 문제인데 운세를 보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조만간 분명히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운세가 들어온다. 걱정이 크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다.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이 쉽게 취업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4	9			5
5	9	8				
	4			6	2	
		1			2	8
7						4
2		3			4	
4	8		2	1		9
				6	8	2
2			3	8		6

4		6	1	3	9	7
7		9				
5	8				9	7
9		2				
7	3					2
					5	7
		7	8			9
					8	3
2	3	1	9	7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와인시장 바닥은 어디... 화이트 와인만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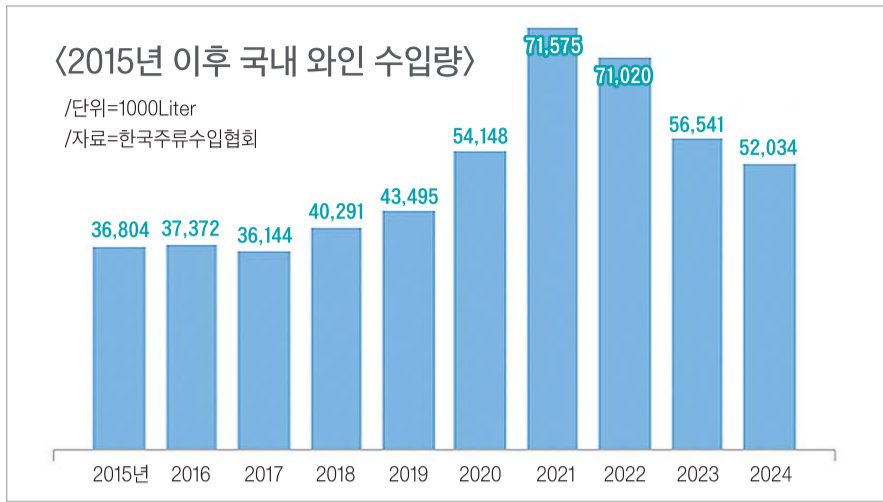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4년 수입주류 통계

와인업계에 곡소리가 난다지만 작년에도 잘 팔린 와인이 있다. 화이트 와인이 늘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뉴질랜드 와인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칠레 와인에 비해 기존 수입 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율 77%(물량 기준)는 분명 눈여겨 볼만한 수치다. 호주 와인을 이미 앞질렀고, 금액 기준으로는 스페인 와인보다도 많이 팔렸다.

다만 와인 시장 전체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실 와인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가 다같이 울상이다. 하이볼을 등에 업고 살아나던 위스키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수입



맥주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접어든 모양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와인 수입 규모는 4억6208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7% 감소하면서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수입된 와인은 5203만 리터로 물량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8% 줄었다.

와인시장은 팬데믹으로 열풍이 불었던 2021~2022년을 정점으로 엔데믹과

함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 3.8%로 주춤하더니 2023년 -12.9%, 2024년 -8.7%로 감소세가 굳어졌다.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주종을 불문하고 수입 주류 대부분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3년 수입량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위스키는 작년 2744만 리터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상반기 반짝 유행하던 데킬라도 연간으로 보면 물량이 4.5% 감소했고, 수입 주류 가운데서는 사계 정도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종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업장 쪽에서 타격이 워낙 컸다”며 “일부 소비가 된다고 해도 가정용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팔리는 정도며, 2030 젊은 층에서 데킬라가 인기를 끌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다”고 설명했다.

와인 수입이 줄었기는 한데 와인이나 국가별로 보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레드 와인은 수입규모 기준으로 13.3% 감소한 반면 화이트 와인은 8.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생산지 가운데 유일하게 뉴질랜드 와인의 수입이 늘었다. 수입 금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55%나 늘어 스페인과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됐다.

종합해보면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의 선전이 전체 와인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아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젊은 층, 그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레드 와인 대비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을 선호했고, 소비봉 블랑이라는 대표 품종으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와인 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예상 범위보다 벗어날 정도로 급등하면서 애써 수입역직 손해를 봤다는 수입사들도 나오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이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보수적으로 경영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생활의 매 순간, 여행자의 태도로

직장인들은 대개 여행을 지긋지긋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여긴다. 여름휴가를 떠날 때 기를 쓰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일상의 상흔이 질게 남은 ‘한국이 싫어서’일수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저자 정혜윤은 여행을 일상의 탈출로 보는 의견에 반대한다. 그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의 매 순간을, 여행지에 온 여행자의 태도로 살 것을 권한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목표 따윈 생각 않고 더 알고 더 느끼는 데서 단순한 기쁨을 느낀다. 반면 삶 속에선 수많은 것들을 오로지 수단으로 삼는다. 여행지에서 우린 낯선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는다. 허나 삶 속에선 친절함을 기대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타인과 소망을 나누지 않는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확실한 길만 찾아가지 않는다. 이와 달리 삶 속에선 확실한 것만 찾는다.

정혜윤은 세상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은 장소가 아닌 자신이 세상에 유일한 여행자인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여행을 주제로 쓴 인터뷰집 ‘여행, 혹은 여행처럼’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향 땅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그러나 밤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혼자 읽기 아까워 소개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충청북도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시문학 동아리 회원들이다. 시 창작 교실 맨 앞자리에 앉은 한층자 할머니는 일흔두 살까지 문맹이었다. 딸이라 하면 그저 집에서 귀여워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부모는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먼 친척의 중매로 옆 동네로 이사 갔다. 시집은 가난했고, 식구가



여행, 혹은 여행처럼
정혜윤 지음/난다

많았다. 딸이 굶어 죽을까봐 출가시킨 후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던 친정 엄마는 딱 한 번 딸네 집에 찾아왔다. 그저 손자만 안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얻어다 준 국수 한 그릇을 서서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곤 며칠 뒤 돌아갔다. 이 일은 평생의 슬픔이 됐다.

“이대로 늙을 순 없다!”라는 구호를 노트북 앞에 붙여 놓은 정반헌 할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살면서 시 비슷한 것을 써본 적은 없지만, 다른 걸 끼적여 본 기억은 있다. 쇠죽을 끓이다가 막대기로 쇠죽에다가, 밥을 짓다가 부지깥이로 흠바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도 교복 입고 학교에 가고 싶다” 부모에게 털어놓으면 속상해할 말, 친구에게 고백하면 미쳤다는 소릴 들을 이야기가 쇠죽의 뽀글거리는 거품 위에, 부엌의 흠바닥 위에 쓰였다가 사라졌다.

정혜윤은 “그녀들이 시를 심는 땅의 이름은 삶이었다. 동시에 그녀들이 뿌리는 씨앗도, 쓰는 시도 삶이었다”고 말한다.

28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식물학자 아서 겔스틴은 1943년 ‘2,3,5-트리오도벤조산’이라는 화합물을 흡수한 식물은 성장이 빨라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잎을 떨어뜨리며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뜻하지 않게 그의 연구 결과는 인간을 대량 학살하는 무기 개발에 활용됐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베트남의 마을 2만여곳에서 약 400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돼 40만명이 숨졌다. 자신의 연구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데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겔스틴은 고엽제 무기와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섰다. 범죄를 저지른 권력은 미꾸라지처럼 범망을 빠져나갔다. 책은 에코 사이드를 처벌할 근거를 ‘지금 당장’ 마련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300쪽. 1만8000원.



황준서 지음/오월의봄

당신은 세계 그 질문을 한 2만 번째 사람입니다

“제가 여성혐오자라고요? 저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 “왜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봅니까?”, “미투 때문에 나도 ‘무고’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페미니스트라면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질문들이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페미니즘 백래시가 심한 나라다. 자신의 정체성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면 삶의 난도가 높아진다. 이유도 모른 채 공격당하기 일쑤고, 질

리독록 같은 질문에 시달린다. 질문자들은 정말 궁금해 묻는 걸까. 책은 페미 교수와 반페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마주한 질답들로 구성된 페미니즘 입문서다. “페미니즘이 남자들을 죽이려 든다”는 해괴한 유언비어를 믿는 이들, 온라인상에 떠도는 실제 없는 ‘상상 페미’가 남성을 괴롭힌다는 헛된 망상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176쪽. 1만6800원.



오혜민 지음/날

가족신분사회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장에게 가족 내 친권과 재산권 등을 독점케 하고 그것을 남성 직계 비속에게 우선 세습하는 호주제 폐지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평등한 세상을 살게 됐을까. 한국사회 성차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호주제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유산은 수많은 법제도에 남아 변함없이 강력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성애자로 이뤄진 ‘정상 가족’을 구성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할 것을 개인에게 요구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엮인’ 관계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법망의 보호 밖에서 불평등과 차별, 낙인을 경험한다. 책은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간의 한국가족정치사를 파헤친다. 312쪽. 1만8000원.



가족구성권연구소 지음/와온



▲美 시애틀 공항서 여객기 2대 충돌 ‘날개가 꼬리 관통’
▲트럼프, 이민자 추방 ‘타이틀42’ 재가동 검토... ‘홍역·결핵 발미’
/사진 뉴시스

▲美 국무장관 “G20 회의 안가...남아공 토지정책 등 문제”
▲“파나마, 美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

▲트럼프 가자 구상에 우려 지속...“영원한 전쟁 레시피”
▲美 전 여성 수영선수 3명, ‘트랜스젠더’ 출전 허용한 하버드대 소송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첫 삽
진로 세계화 전초기지
니



Life

버추얼 휴먼
반짝 인기?
비용·한계 '발목'
L2



영유아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장 건강’ 맡겨주세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일동제약 ‘비오비타’



일동제약 ‘비오비타’는 일찍이 60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유산균에서 국내 대표 유산균으로 거듭났다. 비오비타는 국산 기술로는 처음으로 개발된 영유아용 유산균 영양제다. 설사, 변비 등 기본적인 정장 작용을 개선해 주고, 활성 소화균과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동제약 창업주 고(故) 윤용구 회장은 아주 어린 시절, 장 질환으로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과 1908년생으로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등 역경의 시대를 겪은 윤용구 회장은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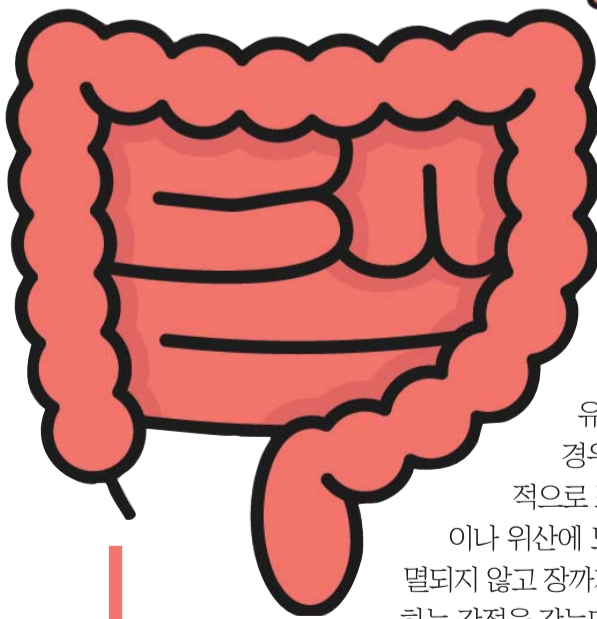
윤용구 회장은 ‘모든 의약품의 근본은 사람이다’라는 창업 정신으로 1941년 일동제약을 본격 설립하고, 장 건강을 위한 발효 물질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1940~50년대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유산균은 그 자체로 생소했다. 유산균 배양 기술은 물론, 원료, 자재, 연구 장비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온갖 열악한 환경에서 윤 회장은 대부분의 연구와 실험은 사택 뒤뜰에서 진행하고, 유산균 배양은 서울약대 또는 중앙공업연구소의 시설을 빌리는 등 끊임없이 집중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유산균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 도전 끝에 윤 회장은 활성 유산균 대량 배양에 성공한다.

일동제약은 지난 1959년 8월 국내 최초로 유산균 영양제 비오비타를 선보였다. 최초 발매된 비오비타는 정제, 산제, 과립제 등 다양한 형태였고 발매 가격은 300정 1병에 600원이었다.

이후 1960년 8월 비오비타가 유산균제 제법특허(제716호)를 획득하는 등 일동제약은 국내 유산균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다.



일동제약은 비피두스균, 낙산균, 활성 유포자성 유산균 등을 자체 기술로 배양하며 비오비타 경쟁력을 높였다. 활성 유포자성 유산균의 경우, 유산균이 자체적으로 포자를 형성해 열이나 위산에 노출되어도 잘 사멸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번식하는 강점을 갖는다.

비오비타 변천사 (1959년 ~ 2018년)



‘비오비타 배베’ 유산균 드롭스D.



‘비오비타 배베’ 골드와 ‘비오비타 키즈’ 골드. /일동제약

故 윤용구 회장, 장 질환으로 어머니 잃어 전쟁 등 혼돈 속 국민건강 기여 뜻 품기도

열악한 환경서 활성 유산균 대량 배양 성공 1959년 8월, 국내 첫 유산균 영양제 선배

현재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제로 세분화 비오비타 배베·키즈·패밀리 등으로 구성

이러한 양질의 유산균을 대량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배양 과정에서 다른 잡균이 침투하면 내용물을 모두 버려야 하고, 미흡한 건조 기술은 균을 모두 사멸시킨다.

일동제약은 유산균의 사멸을 막기 위한 감압 건조기를 새로 주문 제작하고, 포장재도 개선해 나가는 등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1960~70년대 들어서는 국내 제약 업계가 외국의 선진 제약사들과 기술을 제휴하는 등 합작 투자를 활발히 했으나 이같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펼쳤다.

일동제약은 이처럼 비오비타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휩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의약품 개발은 우리 기술로’라는 기업 정신과 ‘민족 제약’의 자립을 강조한 윤용구 회장의 선구적인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또 비오비타는 ‘백일부터 매일매일, 비오~비~타’라는 광고 문구와 징글송 등이 함께 각인되며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브랜드로도 자리매김했다. 비오비타 광고는 유익한 육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육아 시리즈로 연재되면서 공익성까지 갖춰 소비자 호응을 얻었다. 과거 여성잡지에서 전개한 사랑의 육아 일기 공모전, 동양방송과 개최한

베이비 콘테스트 등으로 가족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도 했다.

비오비타는 현재는 ‘오늘부터 매일매일’이라는 주제로 세분화된 영유아용인 ‘비오비타 배베’, ‘비오비타 키즈’, 남녀노소 온 가족이 섭취하는 ‘비오비타 패밀리’ 등으로 구성됐다.

‘비오비타 배베’ 신제품인 유산균 드롭스의 경우, 액상 유산균으로, 용기에 스포이트가 적용된 제품이다. 분유, 모유, 이유식 등에 활용 가능하고 아기 입 안에 직접 떨어뜨려 줄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비오비타 키즈’는 성장기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원료와 성분을 차별화한 제품군이다. ‘비오비타 패밀리’는 브랜드 핵심 원료인 유익균을 비롯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비타민, 미네랄 등이 들어있는 ‘멀티바이오틱스’ 개념의 제품군이다.

또 비오비타는 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했다.

비오비타는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 8개국에 비오비타를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2018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일반의약품 리스트에 등재됐다. 비오비타 제조시설도 미국 FDA가 제시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준하는 적격 승인을 받았다. 국내 제약사가 일반의약품 유산균 정장제와 관련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사례는 비오비타가 처음이다.

일동제약은 “비오비타가 100일 아기부터 온 가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브랜드로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유산균 관련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원료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2036 올림픽 유치 도전’ 전북 “총사업비 9조 원”... 저비용·고효율 강조 /사진 뉴시스
▲ 이창원호, U-20 아시안컵 명단 발표... 윤도영·강주혁 등 발탁

▲ 손흥민, 우승 한 풀까... 리버풀 잡고 리그컵 결승행 도전
▲ NBA 골든스테이트, 버틀러 트레이드 영입... 커리 부담 던다

▲ 충주 다이브페스티벌, 지자체 축제 홍보 대상 수상
▲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카톡·유튜브